

역사의 화해를 찾는 일본인

시바 료타로 지음 《한나라 기행》 《탐라 기행》을 읽고

김기협

사학자

사마(司馬)는 중국 성(姓)이다. 특히 사학사에서는 사마천과 사마광의 존재로 해서 역사의 기동과 같은 느낌을 주는 성이다. 이성을 일본의 작가가 필명에 쓴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다. 본명이 후쿠다 사다이치(福田定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는 “사마천을 쫓아가기가 까마득하다”는 뜻으로 필명을 지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대륙을 동경하고 옛 일을 그리워하던 섬나라 사람이었다.

37세의 나이로 1960년에 등단해 재작년 타계할 때까지 시바씨는 호한한 작품세계를 펼쳐 문호(文豪)의 이름을 세웠다. 수많은 소설, 평론과 함께 그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역이 (가도(街道)를 간다)라는 제호의 기행문시리즈다. 41책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 가운데 한국을 다룬 것은 둘, 1972년에 펴낸 《한나라 기행》과 1986년에 펴낸 《탐라 기행》이다.

공동의 뿌리 지닌 한국과 일본

《한나라 기행》은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도와주려는 책이다. 저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을 좋아합니다!”는 것이다. 평범한 메시지다. 그런데 이 평범한 메시지가 시바씨의 글에서는 만만찮은 힘을 가진다.

이 힘은 두 나라의 뿌리가 같다는 저자의 깊은 믿음에서 나온다.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서북에서 동남으로 뻗어 있는 통구스문명이 두 나라 문화의 공통된 뿌리라는 것이다. 이 공통의 배경 위에 한족(漢族)문명, 즉 한자문명이 서에서 동으로 관통해 오는 바람에 중세 이후 역사의 굴곡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시바씨는 본다.

그 대강의 틀은 일제시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흔히 활용되었던 관점과 다를 바 없다. 취재여행을 준비할 때 미스 차라는 여행사의 한국인 여직원과 일으킨 갈등을 저자는 유머러스하게 소개한다. 자신은 두 나라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한국의 기층문화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여행 목적을 설명하자 미스 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다시 합방하지는 뜻인가요?” 하더라는 것이다.

두 나라 문화의 배경을 같은 동그라미 속

이 책들은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도와주려는 책이다. 저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한국을 좋아합니다!”이다. 또 한국 독자들의 반성을 위해서도 좋은 거울이 된다. 게다가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에 넣되, 동그라미의 중심을 굳이 일본에 두려 했던 과거 일선동조론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요점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치적 관점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되며, 순수한 탐구심으로 공동의 뿌리를 확인한다면 두 나라 사람들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탕이 같다는 기본관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웬만큼 해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저자의 해박한 식견이 빛을 발한다. 샤머니즘에서 유교를 거쳐 근대의 정치상황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울타리 없는 이해력은 읽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준다.

예컨대, 두 나라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주자학의 영향이다.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온, 그 자체로는 진부한 논점이다. 그런데 그가 그려주고 있는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의 행동양식의 차이는 생동감이 넘친다.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넓은 지식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융화점 찾는 열쇠

《한나라 기행》보다 십여년 뒤의 《탐라 기행》에는 지식으로부터 이해심 쪽으로 비중이 더욱 움직였다. 주제가 작어진 만큼 관점도 섬세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거니와, 이 차이를 통해 《한나라 기행》의 속편 역할

도 겸하는 책이 된다.

《한나라 기행》에서 저자의 인간관이 미세스 임이라는 안내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탐라 기행》에서는 현문숙과 강제인이라는 제주 출신 재일교포 지식인들의 모습에 비쳐진다. 그 사이에 더욱 성숙한 저자의 관점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델을 직업여성에서 고급문화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취재여행에 동행하는 현씨와 강씨는 제주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 또한 얼마만큼은 일본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세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융화점을 찾는 저자에게는 열쇠처럼 보인다. 특히 제주인이라는 제3의 아이덴티티가 차츰 평면적 대립으로 고착되고 말기 쉬운 두 아이덴티티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긴요한 역할을 한다.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친 1세기 간의 몽고점령기가 제주에 남긴 흔적에 저자가 집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통구스문명의 후계자 가운데 오늘날 민족과 국가를 지키고 있는 것은 서쪽으로 흘러간 터키를 제하면 한국·일본과 몽고뿐이다. 제주가 몽고를 조금이라도 대표해 줄 수 있다면 제주심을 둘러싸고 ‘통구스 삼국지’를 펼쳐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전 너무 그림 같은 얘기다. 시바씨는 무리를 줌 한 것 같다.

그러나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입장을

넘나드는 저자의 절묘한 줄타기는 《탐라 기행》에서 압권을 이룬다. 뉴턴 물리학에서 3체운동이 불가해한 숙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간의 교섭에서도 양자간의 교섭과 3자간의 교섭은 차원이 다른 현상이다. 저자가 그리려 한 통구스문명권 3체운동이 비록 확고한 패러다임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가설로서는 생각을 넓히는 좋은 길을 많이 보여준다.

두 나라를 아울러서 그린 한 편의 그림

일본인 독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은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자의 노골적인 목적이다. 그것이 단순한 미화라면 효과는 뻔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점들을 감추기는커녕 여지없이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만한 배경을 찬찬히 설명한다. 지적받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고맙게 받아들이며 위안마저 받을 만한 대목이 적지 않은데, 아마 일본인 독자들도 그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반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리라.

따라서 이 책들은 한국 독자들의 반성을 위해서도 좋은 거울이 된다. 게다가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 오히려 일본인 독자들보다도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것이 저자의 원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도, 아마 지하에서 더 더욱 만족스럽게 여기리라 믿는다.

한국과 제주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가운데는 조금이지만 정확치 못한 느낌을 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책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함은 아니다. 이 책들은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저자의 마음을 화폭으로 하여 한·일 두 나라를 아울러서 그린 한 편의 그림이다. 사진이 아니다.

번역자 박이엽 선생께 각별한 경의를 표한다. 좋은 재료 중에는 요리가 무척 까다로운 것이 있는데, 박선생의 요리는 훌륭하다. 번역에 고심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학교재/A5신/252·258면/9500·9800원

